

고흥 조생 복숭아 본격 출하...과즙 풍부·높은 당도 '인기'

255톤 생산 예정, 고흥물 최대 30% 할인 판매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에서 조생 복숭아가 자동화 선별 시스템을 통해 공동 선별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강종수 기자

/강종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조생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어 지난 15일부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흥 조생 복숭아는 과역면 일대 48헥타르(ha)에서 94 농가가 255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을 머금고 자라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6월 상순부터 수확할 수 있어 시장 선전에 유리하며, 제철에 맞춰 출하되는 만큼 신선도와 당도가 우수해 여름철 선물용과 가정용 과일로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수확된 고흥산 조생 복숭아는 고흥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지난 3월 개장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보성군보건소, 제81회 구강보건 날 맞아 행사 운영

보성군은 최근 제81회 구강보건 날(6월 9일)을 기념해 보건소 주관으로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체험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齒)로운 노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구강보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용품 사용법을 안내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제도와 보성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련 사업을 홍보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칫솔질 교육과 포드존을 운영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렸다.

해남, '민선8기 마무리'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 개최

해남군은 최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점검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 자리는 총 16개 부서, 45개 팀의 1억원 이상, 집행률 70% 이하의 407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8기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연속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담당 팀장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연찬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군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팀에서 부서를 직접 방문, 추진상황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부군수 책임아래 매일 집행 현황을 점검해 누수없는 재정 신속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또한 본예산 대비 1,336억원을 증액한 1조 42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 경기 안정에 나서고 있다.

/윤보현 기자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청취 시작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민선9기 진도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민선9기 군정의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15일부터 22일까지 소전미술관 2층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원과 진도군 본청 부서장 등이 함께 진행하며, ▲'기획·행정' ▲'경제·문화·관광' ▲'농림·수산·축산' ▲'복지·보건' ▲'건설·환경' 등 위원회 분과 체계에 맞춰 당면 현안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분과별 업무보고에는 진도군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과제별 추진 가능성과 우선순위, 협업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가영 기자

장흥,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 '진남 행복버스' 운영 시작

장흥군은 최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을 받아 안양면 풍암마을에서 '찾아가는 진남 행복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풍암마을회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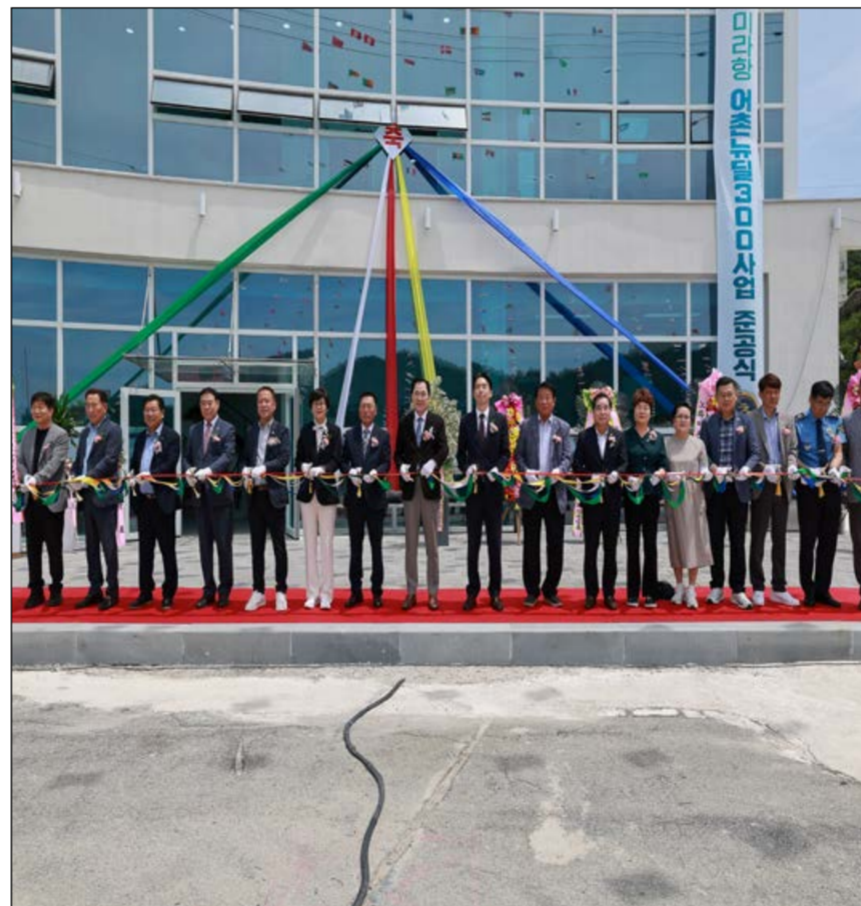
이날 현장에서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이·미용 및 네일아트 서비스, 인생사진 촬영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심전도 검사와 보건 상담 등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식당이나 군청에 갈 때마다 무인기기 앞에서 당황하곤 했는데, 이번에 차근차근 배우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102억 투입 노화 미라향 어촌뉴딜 300 사업 준공



노화읍 대대손손 복지센터에서 미라향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최근 노화읍 미라향 대대손손 복지센터 광장에서 주요 내빈과 기관·사회 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화 미라향 어촌뉴딜 300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미라향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노화 미라향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21년에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2억 6,300만 원이 투입됐다.

완도군은 2022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기본·시행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대손손 복지센터 신축, 전북 활력 센터 및 활력공원 조성, 기항지 개선, 선착장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작업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라향이 어촌뉴딜 사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찬호 추진위원장은 "사업이 준공되기까지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전하며, 시설이 주민 삶과 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와 함께 운영에 힘써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준공으로 미라향은 어업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의 향상이 기대되며, 어촌뉴딜 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을 지속 추진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